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박현미<sup>1,\*</sup> · 석자영<sup>1</sup> · 박소연<sup>1</sup> · 이소영<sup>2,†</sup>

<sup>1</sup>경운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sup>2</sup>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0년 9월 17일 접수: 2020년 10월 17일 수정: 2020년 10월 20일 채택)

### The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Park Hyeon-MI<sup>1,\*</sup> · Seok Ja-Yeong<sup>1</sup> · Park So-Yeon<sup>1</sup> · Lee So-young<sup>2,†</sup>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sup>1\*2†</sup>

(Received September 17, 2020; Revised October 17,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전공만족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4개 도시에 소재한 4개 간호대학의 간호학과 231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강화를 위해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전공만족도, 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간호, 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For this purpose, 231 nursing students from 4 university in 4 city were sampled for conveni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directly affect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nursing professionalism showed mediating effects in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directly affecte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108959@naver.co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strengthe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Major satisfaction, Professiona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Students*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의식적인 일련의 간호 활동을 의미한다[1]. 임상 간호사의 높은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업무 수행능력과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 때부터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2,3].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간호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으로 간호사가 된 후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으로 간호 실무 발전에 기여 가능하다[4-6].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환자를 돌보기 위한 임상 전문가의 첫 걸음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대학생 자신의 미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이며 다양한 진로 결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를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한다[8]. 진로준비행동은 확고한 직업의식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의식과 자질 개발 등을 의미하고 있다[7].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의 충분한 준비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확률을 높이지만, 부족한 진로준비행동은 그 반대의 결과로 사회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9]. 즉, 간호대학생의 충분한 진로준비행동은 임상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자신이 수행하는 간호행위에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역할수행능력 향상으로 임상적응능력 증가와 간호사 이직률의 감소요인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8,9].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생각하는 간호에 대한 직업적 소견과 가치에 대한 관점, 자아실현의 다양한 인식으로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간호사의 모습으로 목표를 향한 준비 행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2]. 또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간호대학생이 신규간호사가 되어 처음으로 임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충격

극복으로 전문직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

간호학과는 타 전공보다 높은 전공만족도를 보이는데, 이는 이론교육과 더불어 실제 임상 현장 실습 수행으로 자신이 결정한 전공 기대치와 전공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9]. 간호대학생의 높은 전공만족도는 미래 자신이 수행하게 되는 간호직에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과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 확립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간호대학생에게는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10]. 그러나 현재 간호학과를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취업의 용이성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11], 학과에서도 전공에 대한 흥미도 가지기 전 많은 전공공부와 엄격한 교육과정과 더불어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준비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공만족도가 감소되기도 한다[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간호사로서 필요한 진로준비행동과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신념인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2].

그래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에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의 검증으로 이를 추후 간호대학생의 진로교육 방향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와 같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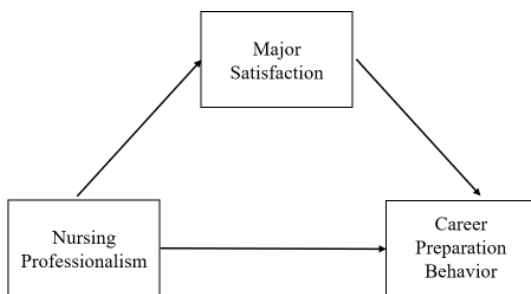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

###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D시, G시, C시, K시 4개 도시에 위치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목적에 동의하는 학생으로 편의추출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는 중간크기로 산출하였을 때 최소표본의 크기는 220명이었다. 탈락률을 10-20% 고려하여 26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료 수거 후 불성실한 혹은 미응답을 제외한 231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는 Yeun, Kwon과 Ahn[12]의 도구를 Jung[13]이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18문항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다. 도구는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18-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이었다.

#### 2.3.2.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Kim[14]이 개발한 도구를 Lee[15]이 수정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으로 정보수집 행동 6문항, 도구준비행동 5문항, 목표달성 행동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문항을 합산하여 문항 수대로 나눈 평균이 진로준비행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94이었다.

#### 2.3.3.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Illinois대학에서 개발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Lee[16]가 수정·보완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 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 만족 3문항, 교수 학생 간에 관계 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6]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91이었다.

### 2.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9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D시, G시, C시, K시 4개 도시에 4개 간호대학 재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목적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가 든 밀봉된 봉투를 주어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확인은 Sobel test를 통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한 후 자발

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밀이 유지되고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연구대상자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고 밀봉된 설문지를 주었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밀봉된 상태로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84.4%, 학년은 1학년 32.9%, 2학년 34.6%, 3학년 26.4%, 4학년 6.1%였다. 종교는 ‘없다’가 77.5%, 지원동기는 취업과 적성이 각각 39.8%와 37.7%였으며, 희망취업병원은 수도권 대학병원 43.7%, 지방 대학병원 42.7%로 나왔다.

#### 3.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80±.53점, 전공만족도 3.99±.55점이었으며, 진로준비행동은 3.23±.82점이었다[Table 2].

#### 3.3.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r=.629, p<.001$ ), 진로준비행동( $r=.430,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도 유의한 상관관계( $r=.629, p<.001$ )을 보였다.

#### 3.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간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4]와 같이 3단계의 회귀반정식을 시행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36(15.6)
	Female	195(84.4)
Grade	1	76(32.9)
	2	80(34.6)
	3	61(26.4)
	4	14(6.1)
Religion	Yes	52(22.5)
	No	179(77.5)
Motivation for Nursing	Work	92(39.8)
	Economic stability	24(10.4)
	Family(teacher) advice	27(11.7)
	Aptitudes and interests oneself	87(37.7)
Hospital you want to choose	Capital area University hospital	101(43.7)
	Local University hospital	99(42.7)
	General hospital	21(9.1)
	Private hospital	1(0.4)
	Long-term care hospital	2(0.9)
	etc.	7(2.8)

Table 2. Degree of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N=231)

Variables	Mean ± SD
Nursing Professionalism	3.80 ± .53
Major Satisfaction	3.99 ± .5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23 ± .82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31)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ism	1		
Major Satisfaction	.629**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30**	.368**	1

\*\*p&lt;0.0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Step	Variable	B	SE	$\beta$	t	p	R <sup>2</sup>	Adj R <sup>2</sup>	F	p
1	NP→MS	.66	.05	.62	12.24	<.001	.396	.393	49.98	<.001
2	NP→CPB	.67	.09	.43	7.20	<.001	.185	.181	51.94	<.001
3	NP, MS→CPB						.201	.194	28.63	<.001
	NP→CPB	.51	.11	.32	4.30	<.001				
	MS→CPB	.24	.11	.16	2.12	<.001				

NP; nursing professionalism, MS; major satisfaction, CPB;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본 연구의 회귀모형 분석 적절성 여부를 위하여 다중공선성의 확인을 위한 공차한계는 .840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90으로 10미만이었으며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Durbin-Watson은 1.087로 2에 가까울수록 독립변수 간에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이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충족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1986년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검증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간호전문직관과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62, p < .001$ ). 2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인 간호전문직관과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3, p < .001$ ). 3단계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고( $\beta = .32, p < .001$ ),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다( $\beta = .16, p < .001$ ). 따라서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는 부분매개 변수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설명력은 20.1%로 나타났다[Table 4]. 통계적 유의성을 검

Table 5. Sobel Test for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Path	a(SEa)	b(SEb)	z(p)
NP→MS→CPB	.66(.005)	.24(.11)	4.80(<.001)

NP; nursing professionalism, MS; major satisfaction, CPB;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정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행한 결과 Z값이 4.80( $p < .001$ )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즉,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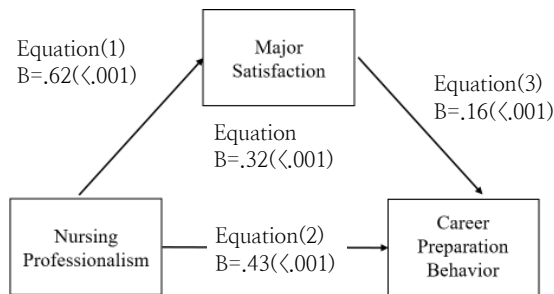


Fig. 1. Model showing the influe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 4. 논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3.99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과 Oh[17]는 3.82점, Park과 Han[18]은 3.86점으로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의료인에게 중요한 윤리가치관 형성과 생명윤리의식 고취와 관련되므로[10,19], 간호대학생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 간호대학생의 전공 불만족은 추후 임상간호사가 되어 간호직무 수행시 간호직에 대한 역할 혼란과 직무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20,21]. 전공만족은 전공에 관한 명확한 자기 확신으로 자신의 직업 선택과 준비과정 및 직업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현재 간호사가 부족한 우리나라 간호대학의 전공만족도에 향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1].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으로 간호

사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형성으로 전문간호사로서 역량의 함양으로 간호전문가로서 역할발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수간호사의 경우 법적인 다양한 문제로 학생실습지도의 한계성이 있다[22,23].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저학년이 많은 본 연구에서는 3.80점이었고, 고학년이 다수인 Park과 Oh[1]는 3.91점, Je와 Park[24]의 연구에서 3.90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될수록 전공 관련 학습이 증가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며 간호학에 관심이 높아져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진다는[25]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저학년부터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 교과목 외에도 다양한 교양과정부터 간호전문직관 함양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개발하여 이를 통하여 형성·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저학년부터 간호에 관한 간접경험으로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9]. 간호전문직관의 향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과도 연결되어 학업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할 것이다[10,23]. 간호대학생 시절의 명확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미래 간호사로서 자긍심과 신념을 가지며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어 추후 임상현장에서도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몰입 등으로 간호분야의 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1,24].

진로준비행동은 3.23점이었고, 간호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74점[24]으로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높아짐과 동시에 4년 동안 간호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전공 교과목과 임상실습을 통한 꾸준히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한 결과로 보여진다[7].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4년 동안 다양한 자격증 취득, 해외어학연수 및 의료봉사, 병원 인턴십, 토익성적 등과 같은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28] 불구하고 수도권 및 지방 대학병원으로 희망취업을 선택하며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임상실습에서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실습 시 인력 부족으로 간호조무사 혹은 간병인 등 비전문 인력들과 함께 비표준화된 간호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일관적이지 못하고 비표준화된 실습교육에서 옳고 그름에 관한 혼란을 경험한 결과로 보인다 [26]. 이러한 경험은 간호대학생 자신이 가진 간호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전공선택에도 회의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프로그램은 대학과 의료기관이 함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지역들의 간호대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연구의 일반화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며,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가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이므로 취업 준비생인 타 전공생들과 간호대학생을 차이를 비교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변화를 확인하는 종단적 연구로 학년에 따른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 필요성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들의 간호대학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References

1.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2 pp. 417-426, (2014).
2.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 62-71, (2011).
3. J. A. Seong, E. Y. Yeom, Y. S. 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1 pp. 798-809, (2014).
4. M. Y. Mun, S. Y. Hwang, "Impact of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8 pp. 403-418, (2016).
5. H. H. Park, S. Y. Kim,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0, No.6 pp. 369-378, (2016).
6. S. H. Choi, E. K. Yun,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tress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4 pp. 2303-2313, (2016).
7. H. S. Song, S. H. Lim,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4 pp. 21-36, (2017).
8. 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 873-886, (2014).
9. A. Ronka, L. Pulkkinen, "Accumulation of problems in social functioning in young adulthood. A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No.2 pp. 381-392, (1995).
10. K. G. Lee, G. S. Je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and

-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8, No.1 pp. 77-86, (2020).
11. Y. J. Yang, K. S. Han, M.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1 pp. 23-33, (2014).
  12.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 1091-1100, (2005).
  13. S. H. Jung, "The ethical attitude related to DNR and th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among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Kwangong University, Gangwon, (2007).
  14. B. W.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1997).
  15. M. S. Lee, "Analyse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llabuk-do, (2003).
  16.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17. Y. Y. Park, D. H. Lee, "The role of job-search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3, No.2 pp. 85-101, (2014).
  18. S. H. Park, S. H. Han,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 517-526, (2016).
  19. H. J.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6 pp. 68-77, (2017).
  20. D. Barron, E. West,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Policy*, Vol. 12 pp. 46-51, (2007).
  21. K. H. Le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eto-resilience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6, No.2 pp. 29-38, (2016).
  22. Y. A. Park, E. H. Kong, Y. J. Park, "Head nurses' experiences in clinical practice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A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Korean Academy of Soc Nursing Education*, Vol.24, No.4 pp. 337-346, (2018).
  23. S. H. Han, "The effecting factors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2 pp. 353-363, (2018).
  24. M. H. Jang, M. S. Kwak, J. R.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9, No.1 pp. 1-18, (2020).
  25. H. S. Park, D. S. Choi, H. C. Kim,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nursing professionalism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5 pp. 93-101, (2019).
  26. M. S. Lee, S. W. Hahn, "Effect of simulation-based practice on clinical performance and problem solving proc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of Soc Nursing Education*, Vol.24, No.4 pp. 337-346, (2011).